

# 펼치면 열리는 마음여행길, 그곳에서 맛보는 청간수의 상쾌함

여행산문집 읽기의 즐거움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속해 있는 공간이나 생각의 틀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그렇지만 꼭 짜여진 생활에서 몸을 빼내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이럴 때 선택하게 되는 여행산문집은 읽는 이를 작가와 함께 마음의 여행을 떠나는 백패키backpacker로 만들어 준다.

작가 특유의 매력이 담긴 문체, 여행지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 파인더를 통해 정제된 독특한 이미지 등이 담긴 여행산문집.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용력을 지닌 책이다. 때문에 여행산문집은 불황의 골이 깊어 가는 출판

계에 한 모금 청량한 샘물이 되고 있다.

**여행산문집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 하나 속 시원한 것은 사회환경과 무미건조한 일상에서 탈출하려는 도시인들의 몸짓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산문집에 담겨 있는 서정성 넘치는 글과 이미지에서 잠시나마 복잡한 일상을 잊을 수 있는 것이다.**

여행산문집은 읽는 사람을 먼 이국의 가슴 설레는 풍경으로 데려가기도 한다. 생활에 지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읽을거리도 담고 있다. 몸은 도심 속에 있

더라도 마음만은 햇빛 쏟아지고 잔잔한 바람이 언덕을 넘어오는 초원을 향해 가는 여행자로 만들어 주는 미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술 마시는 일상에서의 탈출'을 도와주는 여행산문집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우선 작가 특유의 문체가 지닌 매력에서 찾을 수 있다.** 필자에 따라 단어함과 유려함, 무미건조한 것 같은 면서도 투명한 문체가 있어 독자들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상미도 한뼘 한다. 이제 문장력만으로 승부 하던 시대는 지났다. 어쩌면 독자들을 현장으로 초대하는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도구가 이미지일지도 모른다. 서경적(敍景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여행산문인데 이런 특징을 더욱 살려주는 좋은 이미지는 여행산문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된다. 때문에 여행 작가들은 한 장의 사진으로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곳에 가면 언제나 사람이 있다. 여행지에는 이름다운 풍광과 유서 깊은 사적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곳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뚝뚝한 삶을 느낀 대로 담아내는 것도 여행작가들의 작업이다. 어느 소설가는 그의 여행산문집에서 “여행은 결국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사람을 만나러 가는 일입니다. 나와 다른 존재들에게 만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썼다. 여행지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삶이가는 방법과 그들의 삶에서 엿볼 수 있는 특별한 느낌을 전해 듣게 될 때 여행산문은 한층 깊이가 있어질 것이다. 독특한 소재 또한 매력이다. 여행산문에도 선명한 주제가 있으면 좀더 쉽게 독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야기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드러내주는 소재의 선택이 중요한데 여행작가들에게는 그 선택을 위한 특별한 안목이 있어 독자들에게 투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매개로 작가와 독자는 함께 교감한다. 우리의 라의 작은 포구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다루는가 하면, 자전적 여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기도 한다. 이런 소재만으로도 독자는 작가가 전하는 이야기

를 어느 정도 예상하게 된다.

이렇게 많은 매력을 담은 여행산문집을 어떻게 하면 더욱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것인가? 나도 여행작가가 되자. 이 순간만큼은 세상일을 잠깐 집고 카메라를 달랑 맨 방랑자가 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책 속에 펼쳐지는 여행지로 떠나 보자. 비록 작가의 눈길이 가는 곳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자신이 느낀 점을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고 가슴에 담아 둔다. 조금은 소란스러운 거리의 모퉁이 차집에서 유리창 밖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가끔 건너다보며 여행을 떠나 보자. 아니면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산문집에 몰입해 보자.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했던가? 만약 뉴욕을 다룬 산문집을 읽게 된다면 뉴욕의 거리를 활보하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 낙엽이 눈처럼 내리는 상제리제 거리의 어느 노천카페 이야기가 등장한다면 파리지엔느가 될 수도 있다. 모처럼 떠나는 여행의 동반자로 함께 하자. 물론 그곳을 자세히 소개하는 가이드북도 있겠지만 여행을 참미하는 산문집을 읽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 **여행지에서 읽는 여행산문집은 여행을 비비보는 색다른 시각을 선물한다. 주민(住民)馬(馬) 격이 될 수 있는 여행에서 산문집을 통해 단 한 가지라도 의미와 감동을 찾아낸다면 여행은 그 만큼 폭넓고 깊이가 있을 것이다.** 자신이 가장 피곤한 상태라는 느낌이 들 때도 여행 산문집을 펼쳐보자. 몸은 무겁고 마음은 가라앉아 있지만 책 속에 펼쳐지는 이국적인 풍광이나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작가들의 메시지를 접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분노할 일이 있어 마음의 평정을 찾지 못할 때 책 속에 열려 있는 여행지로 모는 것을 잊고 들어가 보자. 여행은 마음의 열병을 가라앉혀 주는 아스피린 같은 효능을 발휘한다.

깊어 가는 이 가을, 한 권의 여행산문집으로 마음의 여행을 떠나 보자. 사람들과 부대끼는 어쩔 수 없는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여행산문집은 한 잔의 청간수 같은 상쾌함을 줄 것이다. **☞**

그곳에 가면 언제나 사람이 있다. 여행지에는 이름다운 풍광과 유서 깊은 사적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